

# Column

## 공공의료와 의료서비스 산업화



글·정영호  
한림병원장(병원협회 보험이사)

요즘은 어디를 가나 ‘힘들다’는 소리 뿐이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가끔씩은 쓸쓸한 재미를 보며 표정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불황의 여파가 심각한 모양이다.

하긴 산업 전 분야에 있어 한정된 수요에 공급이 넘치고 있으니(소위 Buyer's Market이라고 하던가) 당연히 공급자는 지나친 경쟁속에 제살깎기를 꼼짝없이 감내해야 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또는 서비스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게 하지 않는 한(그것도 일시적일 수 밖에 없지만) 과거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던 시절의 달콤함을 맛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지난 30여년간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시장의 변화는 의료인과 병·의원의 생명력을 시험해 보는 인고의 세월이라고 해도 좋을 듯 싶다.

몇 년 전 중소병원계의 원로 한 분이 광음처럼 그리고 괴물(?)처럼 변화하는 병원경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한편으론 너무 힘겹고 다른 한편으론 회의가 느껴진다고,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병원을 접으셨던 기억이 새롭게 느껴진다.

지난 30여년간 의료서비스 산업계에 몰아친 변화의 핵심은 거시적으로는 의료인과 의료자원의 공급과잉 문제라고 간단히 치부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목표로 꾸준히 추진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과 가격 대비 의료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이유는 의료기관이 그동안 규제를 감내하며 경쟁체제를 유지·심화 시켜 온 결과이다. 따라서 민간 의료의 밀려 나간 공간을 공공 의료의 과연 그만큼 효율적으로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온 의료공급에 대한 정부의 규제 중심의 양적 성장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의료인력, 병상 등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의 결과 외형적으로 볼 때 의사의 숫자는 OECD평균에 근접하고, 급성기 병상수는 OECD국가 중앙값의 거의 두 배(5.2 vs 3.1)에 이르는 양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다.

더욱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한 이래로 의료서비스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려는 저수가 정책의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은 오히려 남용과 의료쇼핑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외국에 비해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 대해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또 다른 감회가 전혀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 병원들이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다는 쪽으로 이해의 폭을 애써 넓혀 본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억제하는 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를 어느 정도 보전해온 병원의 비급여 수익에 대해서도 보장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요리하는 숨씨에 감탄하면서 아직은 미흡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병원계가 긍정적으로 동참한다는 뜻으로 위안을 삼아 본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의료확충의 의미를 ‘국가 소유 의료기관병상의 확대’로 규정하고, 전체 급성기 병상의 30%의 소유주체를 국가로 하겠다는 발상도,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통제 할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에서 비롯되었겠지만,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원가와 서비스 품질이 정말 효율적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본래적 의미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비용 상승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는다.

공공의료의 확충이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후유증을 예견해서 고안된 안전장치로 알려져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공공 의료 확충이 왜 의료산업화의 댓기가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긴, 최근에 ‘민간 병원의 공공 병원 인증제’의 연구 용역을 내놓은 것을 보면, 정책 당국자 들도 공공의료 확충이 오히려 효율성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요즘, 한참 뜨는 경영 용어 중 하나가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라고 한다. 레드오션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루는 민간 의료 기관들이 의료산업화를 블루오션이라고 여기고 의료 산업화에 몰두 함으로써 의료 공공성이 훼손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의료산업화에 도저히 적응 할 수 없는 법인격을 가진 의료 법인 병원이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대외경쟁력이 있는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료 산업화의 목표로 삼고, 그 기본 방향으로 의료제도의 자율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화·고급화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의료시스템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 더 이상 선택할 방법이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산업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품질과 가격의 상관관계인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제껏 구축해 놓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접근성을 허물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현재의 가격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하염없이 높이겠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다.

부분적인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가격을 좀더 주겠다는 뜻 같지만, 이 또한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얻게 되는 가격상승이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비용보다 더 많을 것 같지가 않다.

대외 경쟁력이란, 원가가 좀 들더라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야만 얻어지는 것이고, 국민의 용이한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이용은 규제를 통해 저가를 유지함으로써 담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현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이는 조용히 있으면 될 일이지 굳이 떠들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공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보편 의료서비스 가격을 현재와 같이 원가 이하로 계속 묶어놓고, 서비스 품질 개선만을 유도 한다고 하면, 당장은 경쟁 관계 때문에 이끌려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끝까지 갈 바보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 저수가 정책의 결과는 기형적 의료서비스의 양산과 보편의료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의료산업화의 또 다른 주제는 의료기술의 대외경쟁력 강화인데, 이는 병원 R&D지원, 의료클러스터 조성,

**의료서비스 시장의 대외 경쟁력은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서비스의 3박자가 적절히 조화될 때 시간과 함께 저절로 얻어진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및 의료인 관련 제도 개선,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세부추진 전략이 이행되는 과정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점인 저수가 정책의 개선책은 보이지 않고 직역간, 종별간의 Game의 Rule 을 서로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아귀다툼만 난무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앞으로는 초대형 병원 몇 개를 제외하고 생존마저도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우울한 관측을 접하면서 중간급 대학병원과 어지간한 대형병원 그리고,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한 중소병원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고뇌가 눈앞에 잡히는 듯하여 안타깝다.

보건의료정보화등의 굵직한 전략에 따라 각종 신약, 의료기기, 치료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미래의 핵심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질병 정복의 핵심연구 역량을 강화하면서, 병원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연구 개발 및 산업화와 연계하여 병원 중심 BT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쉽게 동참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BT산업의 특성상 자본과 조직이 충분치 않으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병원들은 거창한 프로젝트 보다는 실용적이고 임상적인 치료기술의 개발이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선하는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최근에 초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병원외형 키우기 경쟁으로 말미암아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얼마전 우연히 한 지방지의 기고문을 보다가 무상(無常)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무상(無常)이란, '일정한 때가 없고 덧없다는 뜻'인데, 인생의 마지막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출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원인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년게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덧없다고 느끼면서도 용케도 어려운 고비고비를 잘 이겨내 왔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지나온 세월이 무상했다면 앞으로 다가올 세월도 무상하고 무상의 세월이 가져다 줄 변화 또한 무상할텐데 오늘이 힘들다고 마냥 푸념만 늘어놓을 일은 아닌 듯 하다.

지금껏 열심히 살았듯이 생존을 위해 아파하며 부대끼다 보면 혹시 내일 당장이라도 무상의 여신이 뜻밖의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여러 이사장님, 원장님들의 건투를 빈다. **KHA**